

# “바람을 불어 마음을 전하다”

## GIST, 참여형 디지털 전시 <메타모프(Metamorph)> 개최

- AI융합학과 '디지털 전시 콘텐츠 프로젝트' 수업(지도교수 송은성) 참여 대학원생이 제작한 인터랙티브 작품 9점 전시... 19일(금)까지 GIST 중앙도서관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이원 전시
- 관객의 추억과 소망 시각화하는 「바람, 개비」 등 기술과 감각이 만나는 작품 통해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 경험 제공... 특수한 의료 환경 속 참여형 미디어로 공공적 가치 확장 시도



▲ 화순전남대병원 1층 로비에 설치된 「바람, 개비(Whirling Wishes)」 작품 앞에서 (왼쪽부터) GIST AI융합학과 권은주·김성현·이윤성·박유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AI융합학과 송은성 교수의 2025학년도 2학기 '디지털 전시 콘텐츠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기술과 감각을 융합한 인터랙티브 작품을 선보이는 제5회 디지털 전시 프로젝트 《메타모프(Metamorph)》를 GIST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이원 전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회에 걸쳐 GIST 중앙도서관 1층 카페에서만 진행되던 전시는 올해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도 운영되며, 병원 방문객을 위한 특별 참여형 설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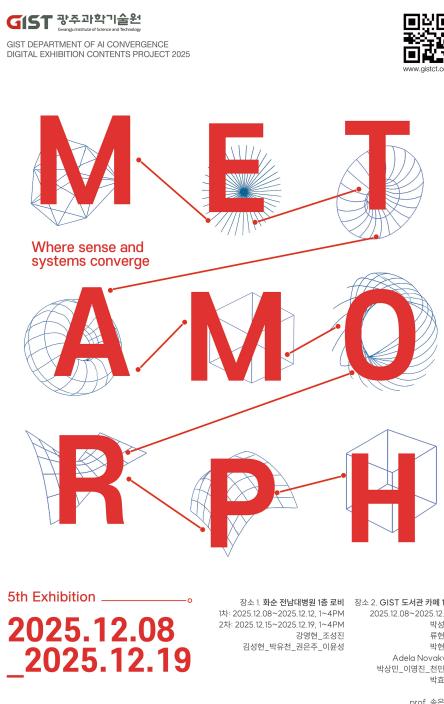
'디지털 전시 콘텐츠 프로젝트'는 GIST AI융합학과 문화기술 전공의 프로젝트 기반 과목으로, 학생들이 기술·예술·사용자 경험을 결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기획·개발하는 수업이다. 매년 연말에는 한 학기 동안 완성한 창작물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전시 주제는 'Where Sense and Systems Converge(감각과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로, 기술 기반 감각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 미디어를 탐구한 총 9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감각(perception), 상호작용(interaction),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의 결합을 시도하며, 병원 전시를 통해 의료 환경에 특화된 작품을 실험하는 의미도 갖는다.

전시 제목 '메타모프(Metamorph)'는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 변형·변환)에서 착안한 용어로, 기술적 시스템과 인간의 감각 경험이 서로 영향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는 시스템의 구조적 패턴이 감각적·참여형 경험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주목하며 '변환의 지점'을 시각적·공간적으로 탐구한다.



▲ 제5회 디지털 전시 프로젝트《메타모프(Metamorph)》전시 포스터

병원 전시는 19일(금)까지 진행되며, 총 2점의 참여형 미디어 작품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마음의 위로와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한다.

바람, 개비 (Whirling Wishes)

권은주\_김성현\_박유천\_이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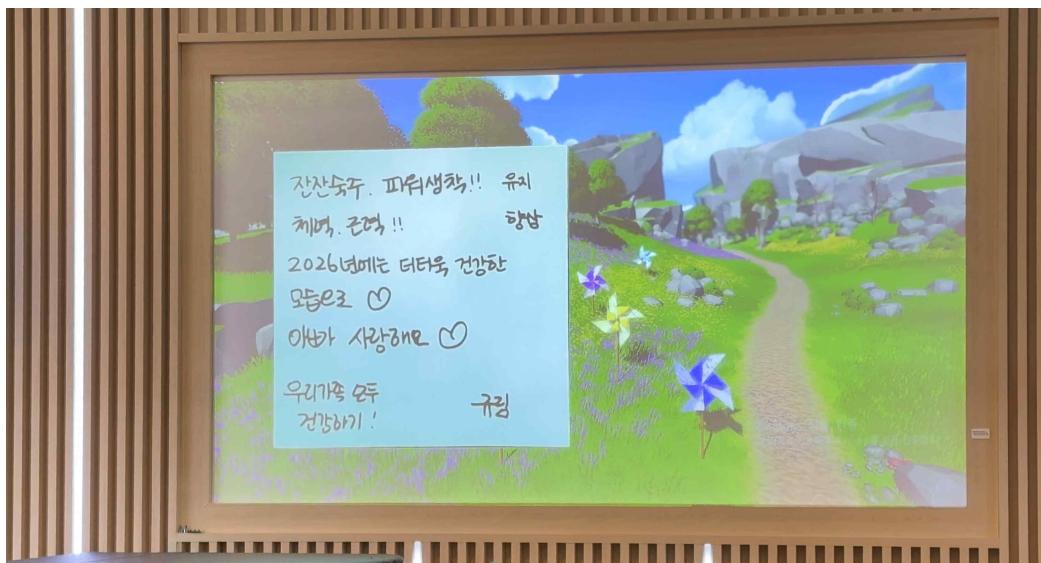
Interactive media installation, 2025

작품 <바람, 개비>는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 개인의 추억과 소망을 시각화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관객은 색종이에 자신의 추억과 소망을 적어 바람개비로 접은 뒤, 바람을 불어 자신의 기억을 작품 속에 남깁니다. 이는 디지털 형태의 바람개비로 변환되어 대형 스크린 위에서 회전하여, 관객의 움직임에 맞춰 반응합니다. 끝으로 관객은 자신이 만든 바람개비를 가져감으로써, 자신의 기억과 소망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고 이동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람의 의미: 불어오는 바람, 바라가는 추억, 바라보는 소망

▲ GIST AI융합학과 학생들(권은주·김성현·박유천·이윤성)이 제작한 「바람, 개비(Whirling Wishes)」는 바람을 통해 개인의 추억과 소망을 시각화한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관객이 만든 바람개비가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되어 대형 스크린 위에서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한다.

병원 전시 작품 중 하나인 「바람, 개비(Whirling Wishes)」는 관객의 추억과 소망을 바람개비 형태로 시각화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관객이 색종이에 적은 소망과 기억은 디지털 바람개비로 변환돼 스크린 속에서 회전하며, 관객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 보내는 동작에 따라 반응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마음과 메시지는 확장되어 다른 이들과 공유되고, 작은 행동이 따뜻한 감정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체험을 제공한다.



▲ GIST AI융합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작품 「바람, 개비(Whirling Wishes)」가 화순 전남대병원 1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다.

송은성 교수는 “이번 전시는 기술과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구현한 결과로, 비전통적 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작품의 사회적 의미를 확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바람, 개비」 작품에 참여한 박유천 학생은 “추운 연말 병원을 찾는 분들께 작품이 따뜻한 위로와 공감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추가 전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